

#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조절 및 매개효과

최현주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Hyun-Ju Choi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확인하고,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역할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K시와 P시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 2개교에서 간호대학생 553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11월 07일부터 11월 25일까지였다. 설문에 응답한 데이터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6점,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97점,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3.34점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r=.640, p<.001$ ),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r=.510, p<.001$ ), 간호전문직관과 대학생활적응( $r=.448, p<.001$ )은 각각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한 조절효과( $F=8.460, p=.004$ )와 부분매개효과( $\beta=.21, p<.001$ )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the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present basic data to assist in adaptation of college life. The study subjects were 553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K and P cities by self-report questionnaire survey. Data were collected between November 7 and November 25, 2016.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SPSS 21.0 program. As a result,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veraged 3.86(out of 5), 3.97(5), and 3.34(5) respectively.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college life adaptation on nursing students. In addition, nursing professionalism had moderating( $F=8.460, p=.004$ ) and partial mediating ( $\beta=.21, p<.001$ ) effects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In conclusion, nursing professionalism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college life adapt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and increase their major satisfac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n educational program that can establish the right nursing professionalism.

**Keywords** : College life adaptation, Major satisfaction,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Hyun-Ju Choi(Kaya Univ.)

Tel: +82-55-330-1176 email: pretty273@hanmail.net

Received February 28, 2017

Revised (1st March 29, 2017, 2nd May 24, 2017)

Accepted June 9, 2017

Published June 30, 2017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정체감과 인생관 확립 및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과도기로, 전문성과 사회성을 개발하여 본인이 원하는 삶의 방향과 직업을 정해서 적응해야 한다[1].

간호대학생에 있어 대학생활적응은 학교생활과 임상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취업 후 간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기본요소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교육과정의 특성상 타 학과에 비해 과중한 전공 공부량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으로 인해 압축된 기간 내에 지식을 습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실습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어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 느끼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2], 이는 나아가 학교생활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

최근의 심각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는 높은 취업률로 전공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나 적성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학생들로 인해 입학한 후 전공만족도의 감소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4].

전공만족도는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의 과정으로 [5], 대학생이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성적저조,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 소외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6]. 그리고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에도 적응을 잘하며, 전공만족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아개념이 높아지고 직업존중감이 높아진다 하였다[7].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결합시킨 개념으로,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은 개인적 만족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간호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중요한 개념[8]이라 하였다. 간호대학생 때 간호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확립은 향후 진로분야의 전문성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생활 동안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은 중요하다[9]. 하지만 많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전문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없이 졸업 후 바로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간호사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이직의

도가 매우 높아 임상현장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0].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전문간호인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간호에 대한 성찰과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직관을 바르게 형성하고 나아가 대학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은 대상자들의 건강한 역할모델을 수행해야하는 전문직 간호사가 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4].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적응을 돕고,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미래의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간호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감성지능[11], 정서지능, 임상실습스트레스[3,4],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12]등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그리고 대학생활적응과 간호전문직 태도[13],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14,15],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16-18]등 개별적으로 관계를 본 연구는 있었으나, 세 변수의 관계를 통합해서 본 연구는 드물었다. 특히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두 변수와 모두 관계가 있었던 간호전문직관의 주요 역할을 예측하고,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역할을 파악하여 건강한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이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분석한다.
- 셋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있어 간호전문직관의 조절 및 매개 효과를 분석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간호 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파악하기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대한민국 K시와 P 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1,2,3,4학년 학생 58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다른 과를 경험하였던 편입생과, 의료편입생, 40세 이상의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표본수 산출 프로그램 G 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238명으로 나와 필요한 표본수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19]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토대로 Cho[20]가 학교만족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 항목을 제거하였고 총 26문항 중 6개 문항이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0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이용한 문항은 일반만족 5문항, 교과만족 5문항, 관계만족 3문항, 인식만족 7문항으로 4개 영역, 총 20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Cho[20]의 연구에서는 .920였고, 본 연구에서는 .916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일반만족 .833, 교과만족 .802, 관계만족 .784, 인식만족 .894이었다.

#### 2.3.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에서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21]를 의미한다.

다. 본 연구에서는 Yeun등[2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 항목을 제거하였고 총 29문항 중 3개 문항이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6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이용한 문항은 전문직 자아개념 9문항, 사회적 인식 7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실무역할 4문항, 간호의 독자성 3문항으로 5개 영역, 총 26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Yeun등의 연구에서는 .92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8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935, 사회적 인식 .899, 간호의 전문성 .787, 간호실무역할 .904, 간호의 독자성 .870이었다.

#### 2.3.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의 학문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대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는 과정 [22]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의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22]를 Hyun[2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 항목을 제거하였고 총 25문항 중 7개 문항이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8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이용한 문항은 학문적 적응 4문항, 사회적 적응 3문항, 정서·신체적 적응 7문항, 대학에 대한 애착 4문항으로 4개 영역, 총 18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Baker와 Siryk의 연구[22]에서는 Cronbach’s  $\alpha$  =.940였고, 본 연구에서는 .896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학문적 적응 .777, 사회적 적응 .751, 정서·신체적 적응 .876, 대학에 대한 애착 .757이었다.

## 2.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대학속속기관에서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을 받았다(IRB-161호). 자료수집 기간

은 2016년 11월7일부터11월 25일까지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580부 중 572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완전 응답자 19부를 제외하고 553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ver 20.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대상자가 인식하는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별 제 변수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확인하였다.
- 대상자가 인식하는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다.
- 대상자가 인식하는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조절 및 매개 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 확인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연령이 20.18세(SD=1.75)이었고, 성별은 여학생이 88.4%, 남학생이 11.6%였다. 학년 별 분포는 1학년 22.4%, 2학년 29.7%, 3학년 22.4%, 4학년 25.5%였으며, 동아리 활동 유무는 있음이 59.3%, 없음이 40.7%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학생이 64.4%로 더 많았으며, 주거형태는 부모님과 거주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기숙사 31.3%, 자취 및 하숙 19.9% 순이었다. 고교때 계열은 인문계 52.8%, 자연계 36.7%, 기타 10.5%였으며, 가족 친지 중 간호사가 있는 경우는 40.1%, 없는 경우가 59.9%로 나왔다. 어머니가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가 68.2%로 더 많았으며, 병원 등 교외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가 31.8%, 없는 경우가 68.2%를 차지했다. 간호학과 전공 선택 동기는 본인 의지로 지원한 경우 64.7%, 부모나 선생님의 권유 31.6%,

성적에 맞춰서 3.6% 순으로 나왔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53)

Characteristics	Category	N	%
Age(yr)	Mean±SD	20.18±1.75	
Gender	M	64	11.6
	F	489	88.4
Grade	1st	124	22.4
	2nd	164	29.7
	3rd	124	22.4
	4rd	141	25.5
Circles activity	Yes	328	59.3
	No	225	40.7
Religion	Have	197	35.6
	Have not	356	64.4
Residence type	With parents	270	48.8
	Trace or lodging	110	19.9
	Dormitory	173	31.3
Curriculum options in high school	Natural sciences	203	36.7
	Liberal arts	292	52.8
	Etc.	58	10.5
Presence of nurse in their familys	Yes	222	40.1
	No	331	59.9
Mother's employment status	Employed	377	68.2
	unemployed	176	31.8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176	31.8
	No	377	68.2
Motivation of choosing nursing major	One's own free will	358	64.7
	Recommendation of family or teacher	175	31.6
	Accroding to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scores	20	3.6

#### 3.2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의 정도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전공만족도는 1~5점의 범위에서 평균 3.86±.48점이었으며, 간호전문직관은 1~5점의 범위에서 평균 3.97±.54였으며, 대학생활 적응은 1~5점의 범위에서 평균 3.34±.63으로 나왔다[Table 2].

Table 2.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ollege Life Adaptation

(N=553)

Variables	Mean±SD	Max	Min
Major satisfaction	3.86±.48	2.25	5.00
Nursing professionalism	3.97±.54	2.00	5.00
college life adaptation	3.34±.63	1.71	5.00

### 3.3 일반적 특성 별 제 변수의 변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성별( $t=3.68, p<.001$ ), 학년( $F=14.69, p<.001$ ), 동아리 활동 유무( $t=5.03, p<.001$ ), 거주형태( $F=10.64, p<.001$ ), 전공 선택 동기( $F=14.08,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이, 학년별로는 1학년이 가장 높고 3학년이 가장 낮았으며,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전공만족도가 더 높았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부모님과 거주하거나 자취 및 하숙을 하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전공 선택 동기에서는 본인 의지로 지원한 경우가 가장 높았다.

간호전문직관은 성별( $t=2.42, p=.016$ ), 학년( $F=8.85, p<.001$ ), 동아리활동( $t=4.63, p<.001$ ), 거주형태( $F=3.71, p=.025$ ), 전공 선택 동기( $F=5.81, p=.003$ )에서 차이가 났는데, 남학생이, 학년별로는 1학년이 2,3,4학년 보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간호전문직관이 더 높았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부모님과 거주하거나 자취 및 하숙을 하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전공 선택 동기는 본인 의지로 지원한 경우가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높았다.

대학생활적응은 성별( $t=3.53, p<.001$ ), 학년( $F=14.69, p<.001$ ), 동아리활동( $t=5.32, p<.001$ ), 거주형태( $F=10.64, p<.001$ ), 전공 선택 동기( $F=14.99, p<.001$ )에서 차이가 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응정도가 높았고, 학년별로는 1학년, 4학년, 2,3학년 순이었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학생활 적응정도가 높았으며, 전공 선택 동기에서는 본인 의지로 지원한 경우가 가장 높았다[Table 3].

### 3.4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관,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r=.640, p<.001$ ),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r=.510, p<.001$ ), 간호전문직관과 대학생활적응( $r=.448, p<.001$ )은 각각에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변수 간 상관관계가 .9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본 연

Table 3.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ollege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53)

Characteristics	Category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ollege Life Adaptation	
		M±SD	t or F (p,Scheffe)	M±SD	t or F (p,Scheffe)	M±SD	t or F (p,Scheffe)
Gender	M	4.06±.57	3.68	4.11±.58	2.42	3.66±.79	3.53
	F	3.83±.463	(<.001)	3.94±.52	(.016)	3.30±.58	(<.001)
Grade	1st <sup>a</sup>	3.61±.57	14.69 (<.001, a>b,d>c)	4.17±.50	8.85 (<.001, a>b,c,d )	3.61±.57	14.69 (<.001, a>d>b,c)
	2nd <sup>b</sup>	3.24±.59		3.93±.50		3.24±.59	
	3rd <sup>c</sup>	3.14±.68		3.85±.55		3.14±.68	
	4rd <sup>d</sup>	3.40±.56		3.91±.53		3.40±.56	
Circles activity	Yes	3.94±.47	5.03	4.05±.51	4.63	3.45±.60	5.32
	No	3.73±.47	(<.001)	3.83±.54	(<.001)	3.17±.62	(<.001)
Religion	Have	3.91±.47	1.86	4.00±.53	1.40	3.34±.63	.02
	Have not	3.83±.48	(.063)	3.94±.54	(.161)	3.34±.62	(.983)
Residence type	With parents <sup>a</sup>	3.30±.58	10.64	3.92±.54	3.71	3.30±.58	10.64
	Trace or lodging <sup>b</sup>	3.18±.68	(<.001, c>a,b)	3.91±.53	(.025, c>a,b)	3.18±.68	(<.001, c>a,b)
	Dormitory <sup>c</sup>	3.51±.61		4.05±.52		3.51±.61	
Curriculum options in high school	Natural sciences <sup>a</sup>	3.88±.45	.61 (.540)	3.99±.51	.84 (.431)	3.40±.62	1.59 (.204)
	Liberal arts <sup>b</sup>	3.84±.49		3.95±.56		3.31±.64	
	Etc. <sup>c</sup>	3.83±.49		3.89±.49		3.27±.53	
Presence of nurse in their family members	Yes	3.86±.48	.39	3.96±.52	-.01	3.37±.59	.91
	No	3.85±.47	(.691)	3.96±.55	(.989)	3.32±.64	(.362)
Mother's employment status	Employed	3.88±.48	1.55	3.98±.53	1.01	3.35±.64	.47
	unemployed	3.81±.46	(.122)	3.93±.54	(.310)	3.32±.59	(.635)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3.83±.50	-.92	3.92±.55	-1.31	3.35±.59	.22
	No	3.87±.47	(.356)	3.98±.52	(.191)	3.34±.64	(.821)
Motivation of choosing nursing major	One's own free will <sup>a</sup>	3.93±.47	14.08 (<.001, a>b,c)	4.02±.54	5.81 (.003 a>b,c)	3.44±.61	14.99 (<.001, a>b,c)
	Recommendation of family or teacher <sup>b</sup>	3.72±.45		3.86±.51		3.14±.59	
	Accroding to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scores <sup>c</sup>	3.63±.64		3.83±.62		3.20±.64	

구에서 최대 .640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ollege Life Adaptation (N=553)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ollege Life Adaptation
Major Satisfaction	1		
Nursing Professionalism	.640( $p<.001$ )	1	
College Life Adaptation	.510( $p<.001$ )	.448( $p<.001$ )	1

### 3.5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조절효과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라는 변수가 갖는 조절효과 규명을 위해서 Baron & Kenny[24]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 시 특정화 오류(specification error)로 인해 야기되는 회귀계수 추정치의 편기(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차이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성별, 동아리 활동, 학년, 거주형태, 전공 선택 동기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남자를,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를, 1학년용, 기숙사 거주를, 전공 선택 시 본인의지를 1로 나머지를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통제 후 조절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보기위해 두 번째 단계의 변수들과 함께 조절변수를 투입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통제 후 독립변수와 상호작용변수(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하였다. 즉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Model 2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갖는 영향을 분석하며, Model 3에서는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갖는 영향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Model 4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간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이 종속변수에 대해 갖는 영향(조절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더빈 왓슨

(Durbin-Waston) 통계량이 1.931로 2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공차한계범위(tolerance)가 .557-.956로 .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05-1.796으로 10이하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인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다음으로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설명력은 모델1은 15.6%, 모델2는 32.1%, 모델3은 33.8%, 모델4는 34.8%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모델2를 살펴보면, 전공만족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eta=.43, p<.001$ ). 모델3은 간호전문직관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간호전문직관을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eta=.17, p<.001$ ). 마지막으로 모델4에서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추가 투입하였고 4단계의 유의확률 F변화량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8.460, p=.004$ ). 따라서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조절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5].

### 3.6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라는 변수가 갖는 매개효과 규명을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첫 번째 단계로 독립변수(전공만족도)가 매개변수(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beta=.64, p<.001$ ). 두 번째 단계로 독립변수(전공만족도)가 종속변수(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beta=.51, p<.001$ ).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수(간호전문직관)가 종속변수(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보았으며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1, p<.001$ ). 그리고 독립변수인 전공만족도가 종속변수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세 번째 단계의  $\beta$ 값이 .38로 2단계의  $\beta$ 값 .51보다 작아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가 있으며,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모두가 종속변수에 유의하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justment (N=553)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Std.β	t	p	B	Std.β	t	p	B	Std.β	t	p	B	Std.β	t	p
(constant)	2.94		56.68	.000	.94		5.18	.000	.68		3.59	.000	3.95		3.47	.001
Gender Dummy	.34	.17	4.28	.000	.21	.11	2.87	.004	.21	.11	2.90	.004	.18	.09	2.54	.012
Circles activity Dummy	.19	.15	3.59	.000	.09	.07	1.89	.059	.09	.07	1.82	.069	.09	.07	1.92	.056
Grade Dummy	.20	.13	2.99	.003	.17	.11	2.84	.005	.14	.09	2.36	.019	.14	.09	2.30	.022
Residence type Dummy	.09	.07	1.61	.108	.09	.06	1.64	.101	.08	.06	1.61	.108	.08	.06	1.61	.108
Motivation of choosing nursing major Dummy	.28	.21	5.33	.000	.16	.12	3.37	.001	.16	.12	3.40	.001	.16	.12	3.39	.001
Major Satisfaction					.56	.43	11.48	.000	.42	.32	6.93	.000	-.44	-.34	-1.45	.146
Nursing Professionalism									.20	.17	3.75	.000	-.63	-.54	-2.17	.030
Major Satisfaction * Nursing Professionalism													.22	1.25	2.91	.004
R <sup>2</sup> (Δ R <sup>2</sup> )	.156(.156)				.321(.164)				.338(.017)				.348(.010)			
Δ F(p)	20.293(<.001)				131.994(<.001)				14.056(<.001)				8.460(.004)			

**Table 6.**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justment (N=553)

Paths	B	S.E	β	C.R.	p	R <sup>2</sup> (ΔR <sup>2</sup> )	ΔF (p)
Step 1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71	.04	.64	19.56	<.001	.41 (41)	382.58 (<.001)
Step 2 Major Satisfaction ->College Life Adaptation	.66	.05	.51	13.92	<.001	.26 (.26)	193.77 (<.001)
Step 3 Major Satisfaction ->College Life Adaptation	.49	.06	.38	8.06	<.001	.29 (.29)	109.74 (<.001)
Nursing Professionalism ->College Life Adaptation	.24	.06	.21	4.39	<.001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간호 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규명하고 여기서 간호 전문직관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변수들에 대한 수준의 관찰 결과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전공만족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6 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Park과

Oh[18]의 3.82, Park과 Han[25]의 3.86과 유사한 결과였고, Oh[15]의 3.43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Kim[14]의 연구에서는 3.37, 안경광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oe와 Jeong[26]에서는 3.49로 간호대학생이 타 전공 대학생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입학 때부터 진로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져있고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과 혼란이 타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라 이 점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97점이었으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Lim등[17]의 3.06점, Kwon과Yeun[16]의 3.60 보다 높았으며, Park과 Oh[18]의 3.91과는 유사한 결과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적 교육을 받는 동안 형성되고 발달하므로, 현재 간호학 교육에서는 전문직관을 높일수 있는 방안으로 전공 교과목뿐만 아니라 교과 외 과정 등을 통해서도 전문직관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활적응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34점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Han[25]의 2.74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며,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Kim[14]의 3.27, 안경광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oe와 Jeong[26]의 3.26점 보다도 높게 나왔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 동아리 활동유무, 거주형태, 전공 선택 동기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본인 의사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더 높게 나온 결과는 Oh[15], Park과 Han[25]의 결과와 일치하

였다. 하지만 종교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과 기속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나머지 거주형태보다 더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은 Oh[15], Park과 Han[25]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학년 별 만족도는 1학년이 가장 높고 3학년이 가장 낮았는데, 2학년이 1.3학년보다 높게 나왔던 Oh[15]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1학년때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가 3학년 때 가장 낮게 떨어진 결과는 전공과목에 대한 막연한 신입생의 기대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중해지는 전공 공부량과 실습의 부담으로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4학년은 다시 전공만족도가 2,3학년 보다 상승하였는데 이는 이미 취업이 결정된 일부 4학년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 의사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고 입학점수에 맞춰서 지원한 경우가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은 Oh[15], Park과 Han[25], Go등[27]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부터 학생들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진로 설계를 도울 수 있는 진로 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차이에서는 전공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남학생이, 1학년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기속사 생활을 하는 경우, 본인의지로 전공선택을 한 경우가 간호전문직관이 더 높게 나왔다. 전공 선택 동기에서는 본인 의지로 지원한 경우가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높게 나왔고 Oh[15], Park과 Han[25] 등 Go등[27]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인 의지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 간호학에 대한 목표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진학하였으나, 단순히 성적에 맞추어 진학을 목표로 간호학에 입문한 경우 입학 이후에도 간호전문직관 정립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1학년이 2,3,4학년 보다 간호전문직관도 높게 나왔는데 이는 1학년이 가장 낮게 나온 Go등[27]과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간호전문직관이 간호학 전문교육을 받는 동안에 형성되며 교육을 받는 동안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28]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남학생과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 높았는데 이는 남학생

들이 동아리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과 욕구를 드러냄으로써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주장하는 Oh[15]의 의견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 4학년, 2,3학년 순으로 3학년이 가장 높았던 Oh[15]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기속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학생활 적응정도가 높았는데 기속사 생활을 하는 경우 학교에 대한 정보가 빠르고 통학 시간과 거리가 짧으며 적응하는데 룸메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 선택 동기에서는 본인 의지로 지원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왔으나 Oh[15]의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 세 변수간의 관계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먼저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온 것은 Kwon과 Yeun[16], Park과 Oh[18], Park과 Han[25], Go등[27] 많은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간호대학생들이 추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며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져 결국 긍정적인 전문직관 형성을 방해한다[28]는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올바른 전문직관을 형성하고 간호사로서 자질을 갖추어 임상현장에 잘 적응하며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간호전문직관을 함양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함께 전공만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과정에서는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 연구를 통해 파악하여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도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ark과 Kim[14], Oh[15], Park과 Han[25]의 연구에서도 정적 상관관계의 결과가 나와 본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진로지도와 직업의식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신입생부터 제공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5]. 간호전문직관과 대학생활적응 또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이는 Park과 Han[25]의 논문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간호전문직관을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Lim[29]의 결과

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이 대학생활적응에 주도적인 영향을 주며 대학 신입생 시기부터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1], 간호학생 때 간호전문직관이 올바르게 확립되면 간호사 일에 대한 가치, 진로 분야의 전문성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향후 간호사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9]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한 교과과정 운영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의 역할을 분석해 본 결과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사이에서 조절효과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이 대학생활적응의 영향요인으로만[25] 검증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전문직관 정도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조절하며, 간호전문직관이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주요 요인이며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결과로 보아 학생들이 간호학을 선택할 때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지적 교육중재와,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화 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확인하고,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역할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한 조절효과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

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학제 등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둘째, 학년 별 간호전문직관과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므로 학년 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 셋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전략 및 프로그램을 도입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H. T.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3, pp. 1576-1583,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576>
- [2]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205-213, 2006.
- [3]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4-23, 2010.  
DOI: <https://doi.org/10.4040/jkan.2010.40.1.14>
- [4]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312-332,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5] I. O. Moon, G. 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o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83-91, 201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83>
- [6] M. Y. Chang,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n their majors, attributional style, and career decision level", Master's Thesis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5.
- [7] B. H. Son, Y. M. Kim, I. J. Jun, "A study on nursing students' job-esteem, work values, and satisfaction of their major",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0, No. 3, pp. 240-249, 2011.  
DOI: <http://dx.doi.org/10.5807/kjohn.2011.20.3.240>
- [8] D. Adams, B. K. Miller, "Professionalism in nursing behaviors of nurse practioner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 17, No. 4, pp. 203-210, 2001.  
DOI: <https://doi.org/10.1053/jpnu.2001.25913>
- [9] T. J. Jang,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s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Master's

-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4.
- [10] Y. H. Kim, "Effect of career empowerment program o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2, pp. 817-828,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2.817>
- [11]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5.2178>
- [12] Y. S. Choi,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3, pp. 423-432,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423>
- [13] Y. H. Kim, "The effects of college life adapt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apt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2, pp. 8948-8956,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2.8948>
- [14] Y. S. Park, H. K. Kim,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nd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 511-519,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511>
- [15] J. H. Oh,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0, pp. 873-884,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0.873>
- [16] Y. M. Kwon,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Vol. 13, No. 3, pp. 285-292, 2007.
- [17] S. Y. Lim, S. Y. Kim, H. M. Choi, "The relationship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 No. 2, pp. 45-51, 2015.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15.1.2.45>
- [18] H. J. Park,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417-426, 2014.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15.1.2.45>
- [19]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pp. 42-73, 1988.
- [20] W. S. Cho,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ccordance with major-interest correspondence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aejin University, pp. 60-90, 2009.
- [21] E. J. Yeun, Y. M. Kwon, O. H. An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DOI: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 [22] R. W. Baker, B. Siryx,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SACQ)", Los Angeles, CA :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9.
- [23] J. W. Hyun,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on the performance of task",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pp. 50-90, 1992.
- [24]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pa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 Soc Psychol*,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5] S. H. Park, S. H. Han,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8, pp. 517-526,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8.517>
- [26] E. S. Soe, K. A. Jeong,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satisfaction with major, adjusting to college life and self-esteem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ptometry and optic science at a university on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Vision Science*, Vol. 17, No. 3, pp. 213-225, 2015.
- [27] J. E. Go, M. H. Kim, E. J. Kim, H. J. Kim, J. E. Um, H. A. Lee et al,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Ewha Nursing University*, Vol. 45, pp. 29-44, 2011.
- [28] D. Barron, E. West,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Policy*, Vol. 12, pp. 46-51, 2007.  
DOI: <https://doi.org/10.1258/135581907780318419>
- [29] M. H. Lim, "Effect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8, pp. 560-568,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8.560>

## 최 현 주(Hyun-Ju Choi)

[정회원]



- 1995년 4월 ~ 2014년 8월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선임간호사
- 2014년 8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 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인사조직관리, 병원경영, 리더십